

# 漢陽都城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 墨書白瓷의 특징과 의미

박 정 민 \*

- I. 머리말
- II. 묵서백자의 종류별 특징과 施文主體의 성격
- III. 한글묵서백자의 등장시기를 통해 본 조선 전기 常燔백자의 조형변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그릇의 형태와 담을 수 있는 양의 변화는 시대별 생활특징을 대변한다. 매일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대상황이 내포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릇의 세부형태가 변하고 굽의 모양과 유약 및 태토의 색과 질도 달라진다. 이처럼 변화하는 특징을 담고 있는 도자기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양식과 유행의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편년’을 얻는다. 만약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에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쓰여 있다면 더 많은 정보와 해당 시기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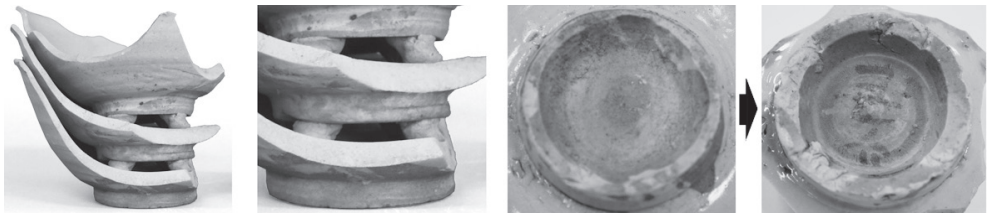
한국도자사에서 그릇에 표시된 銘文에 대한 선행연구는 명문이 시문된 도자기의 편년의 확보와 進上 및 貢納 등 제도사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를 통해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그 체제, 시점에 대한 다양한 성과들이 축적되었다.<sup>1</sup> 최근에는 지방의 사찰이나 분묘에

\* 한울문화재단연구원

<sup>1</sup> 제시한 방법에 의해 연구된 최근의 주요 성과들로는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金允貞,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서 출토된 묵서백자를 주목하고 해당 유물의 성격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다.<sup>2</sup> 다만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묵서백자의 내용은 간단한 부호나 소략한 한자(漢字)들에 국한되어 묵서백자의 포괄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은 앞선 연구성과에 의해 축적된 백자의 생산과 수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 조선 전기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백자에 남아있는 묵서를 통해 그릇의 관리상황과 관리주체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동시에 한글로 묵서된 내용을 살펴, 그 등장시기와 활용주체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 보겠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사대문 안의 조선시대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양한 墨書白瓷을 사용된 문자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백자의 귀속과 출납상황 및 그 행위의 주체를 유추해보겠다.<sup>3</sup> 또한 한글묵서를 통해서도 죽절급백자의 시기별 조형변화에 대한 단초를 확보해 보고자 한다.<sup>4</sup>

묵서는 대부분 15~16세기에 만들어진 죽절급의 백자에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자에 먹으로 원하는 내용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릇의 표면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굽을 시유하지 않는 것은 조선 전기에 포개구이로 만들어지는 常燻백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므로 묵서가 해당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먹으로 백자의 노태면에 쓴 글이나 기호는 물이나 기름 등에 의해 쉽게 지워지



도1 상변백자의 노태된 면에 등장하는 묵서

<sup>2</sup> 박연서, 「朝鮮時代 墨書·釘刻銘 白磁 研究」(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이상국, 「朝鮮時代 墳墓出土 墨書名 白磁 研究」(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sup>3</sup> 처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墨書銘白瓷’ 혹은 ‘墨書銘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銘文이란 용어는 물체의 표면에 칼이나 끌과 같은 도구로 원하는 내용을 세기는 행위로 파생된 결과물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墨書銘文은 물체에 새겨진 음각의 내용에 다시 먹으로 채색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백자들에 남아있는 내용은 단순히 붓으로 쓰인 墨書들이므로 ‘墨書白瓷’ 혹은 ‘墨書된 白瓷’라고 쓰겠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침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우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

<sup>4</sup> 訓民正音が 반포된 것은 1446년의 일이며 실제로 한글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된 것은 15세기 후반 이후의 일로 알려졌다. 한글은 창제이후 주로 왕실의 여성들과 민간에서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사대부들도 해독이 가능한 문자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묵서는 사대부를 포함한 여러 계층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한글묵서가 시문된 백자류들은 그 상한이 1446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편년을 확보하는데도 용이하다.

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도 1).

묵서백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常燾의 백자들은 제작단계에서 소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채 다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전행랑의 沙器店에서 財貨로 매매될 수도 있고 양질의 백자와 함께 관청이나 왕실의 소용품으로 다량 납품되었을 수도 있었다. 백자의 질을 통해 그릇을 사용하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최상질의 백자들은 최종 소비처가 왕실을 포함한 상층의 양반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常燾의 백자는 최종 수요처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 도성에 거주하는 일반 양인이 상변의 백자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왕실과 관청 및 사대부가에서도 상변의 백자는 요구되었을 것이다. 궁궐과 관청에 국왕과 고관대작만이 기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권속들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활용되는 백자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백자에 먹을 이용하여 내용을 써넣는 이유는 그릇의 귀속상황을 표시하여 원활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백자를 사용하면서 타인의 백자와 소유 및 관리주체의 혼동이 없었다면 묵서백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도심의 발굴조사에서 매우 다양한 묵서백자들이 많이 출토된다는 점은 당시에 그 만큼 백자의 소유와 관리 상황이 정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제인 묵서백자는 그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 수단의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통해, 조선 전기 일상에서 이루어진 백자의 관리방식을 유추해보고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 Ⅱ. 묵서백자의 종류별 특징과 施文主體의 성격

都城내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조선 전기 常燾의 백자들 가운데 묵서백자는 일부이다. 이는 나머지 백자는 묵서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자에 등장하는 묵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백자에 묵서를 하는 이유는 해당 백자의 출납 및 귀속처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자에 묵서가 등장하지 않고 기존의 귀속처에서 유출되어 소유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백자에 주로 묵서를 표시하는 것이다.

### 1. 사용된 문자에 따른 묵서백자의 구분과 구분별 시문주체

출토된 묵서백자는 활용된 문자를 기준으로 크게 1)漢字, 2)한글, 3)符號, 4)着名과 手決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구분을 통해 해당 그릇의 쓰임새와 활용 주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 漢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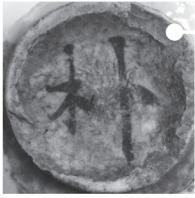
백자에 남아있는 묵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그릇의 소유관계 및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다. 묵서로 시문된 내용들의 書法과 筆劃의 운용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묵서가 쓰인 배경과 그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漢字로 시문된 묵서들 중에는 성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이름에 해당하는 묵서가 주로 한글로 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姓만이 한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오직 성만으로도 소유 및 관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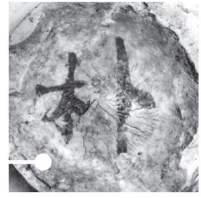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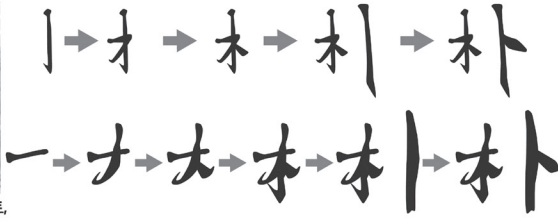
한자로 쓰인 묵서의 사용자들은 한자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한자묵서에 나타나는 필획들을 검토해 보면, 유기적인 한자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한자로 묵서된 성씨들

도판			
내용	〈백자'南'문저부편〉,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현재높이 3.3cm,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吳'문저부편〉, 현재높이 3.7cm, 서울 종로 청진12~16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吳'문저부편〉, 현재높이 2.6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판			
내용	〈백자'俞'문저부편〉, 현재높이 2.8cm, 서울 종로 세종로2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朴'문저부편〉, 현재높이 2.8cm, 서울 종로 청진12~16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漢'문저부편〉, 현재높이 1.9cm, 서울 종로 2가40번지 시전행랑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잔존높이 3.2cm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잔존높이 2.8cm

도2 동일한 유적에서 출토된 획순이 상이한 '朴'자 목서의 비교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의 한 건물지에서 '朴'자가 시문된 두 점의 목서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그러나 두 글자는 서로 획순이 다르다(도2). '朴'이라는 한자는 '木'과 '卜'이 결합된 글자이다. 그러나 출토된 두 점의 '朴'자 목서백자는 '木'부분의 자획이 상이하다. 오른쪽의 1번은 '木'를 쓰고 양쪽으로 떨어져 내린 획들 사이에 '丨'에 해당하는 획을 부가하였다. 왼쪽의 2번은 '木'자 대신에 '木'자를 쓰고 '卜'자를 합쳐 '朴'자를 구성하였다. 각 획의 종단부에 나타나는 삐침의 방향이나 '卜'자의 시작부에 드러나는 필봉의 두께감 등을 고려 할 때, 두 글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쓴 목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획순을 인지하지 못함을 보면 목서를 필사한 사람의 교육 수준은 낮았을 것이다. '朴'자가 획이 단순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쉬운 한자이므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해당 글자를 쓸 수 있었다. 위와 같은 '朴'자를 쓴 사람의 글쓰기 실력은 동일한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朴宅'문저부편>에 등장하는 '朴'자의 획순과 비교할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도3).

<백자'朴宅'문저부편>의 목서는 박씨 성을 가진 집의 주인이 직접 시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朴氏門中에 속해있던 권속들이 시문했거나 혹은 외부인이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유물이 원래 그릇이 속했던 집 안에서만 사용이 되었다면 백자에 굳이 존칭까지 써가면서 '朴宅'이라



도3 <백자'朴宅'문저부편>, 현재높이 3.1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는 내용을 시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서는 박씨 집에 속하지 않은 타인이 백자의 목서를 보고 해당 그릇이 '朴宅'에 속한 그릇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해당 그릇을 남에게 빌려주었던지, 음식을 담아 이웃에 선물한 다음 회수되어야 했기 때문에 부여된 목서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서백자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도성안의 여러 유적들에서 출토된 다양한 성씨의 목서들이 모두 소유주에 의해 직접 시문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백자에 목서를 시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내용

을 통해 그릇의 소유관계나 출납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漢字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 부득이하게 한자로 내용을 쓴 원인은 그릇의 관리를 총괄하는 계층이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유물들이 한글이 반포된 이후에 시문된 그릇이라면 한글로도 시문되었을 수 있고 만약 그릇의 관리자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符號 등을 구분기호로 삼아 시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朴’자 묵서백자들은 내용을 썼던 사람이 한자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자를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한자를 사용하는 관리자가 그릇에 직접 시문하지 않고 일상에서 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던 계층에 속한 자들이 내용을 한자로 시문했음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씨가 한자로 묵서된 백자는 士大夫나 良人 등 개인의 소유물이었으며 타인의 백자들과 혼용될 가능성이 발생할 때, 소속을 분명히 하는 목적에서 표시된 것이다.

## 2) 한글

조선 전기에 등장하는 묵서백자는 활용된 언어를 통해 사용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1446년에 반포된 訓民正音が 조선의 문자생활에 적극 활용되는 과정에서 한글묵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sup>5</sup> 한글은 국가가 만들어 보급했던 글자였지만 사대부들이 문자생활의 주도권을 일반 백성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하여 한자에 비해 속된 諺文으로 간주되었다. 한글은公私간의 여인들이나 하층계급에서 주로 활용하는 문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한글묵서는 한자와는 다르게 이루어진 일상 언어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한글은 창제와 반포 시점이 명확하고 또한 자모음의 변화상과 서체의 흐름이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조선 전기 백자들에 시문된 한글묵서의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도자편년의 구분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6</sup> 동시에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한글묵서가 있는 백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수량이 부족한 조선 전기의 한글자료들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글은 창제이후 주로 왕실의 여성들과 민간에서 적극 활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대부들도 해독이 가능한 문자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로 쓰인 이름은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통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한글묵서로 시문된 백자는 그 상한이 1446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편년을 확보하는데도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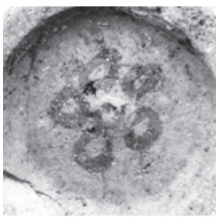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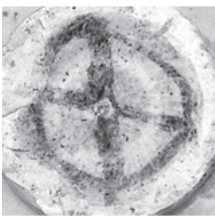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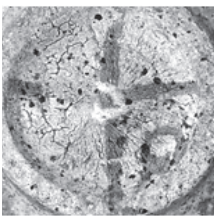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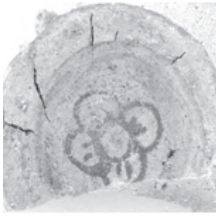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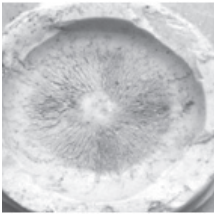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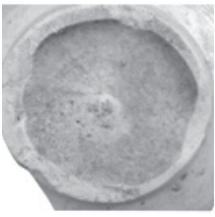
<sup>5</sup> 『世宗實錄』 113卷, 28年(1446)9月 29日 甲午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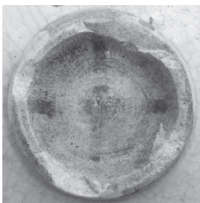
<sup>6</sup> 최근에 이와 관련된 초보적인 접근으로는 박정민,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瓷器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 창간호(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2).

### 3) 符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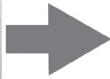
부호를 묵서로 시문하여 백자의 소유 및 관리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단순한 부호는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적당한 구분방식이었을 것이다(표 2). 한편 사용된 먹의 색을 이용하여 백자의 소유 및 관리관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부호는 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형 혹은 위조가 가능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도 4). 그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형식임에도 한자나 한글에 비해 활용이 빈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각종 부호가 묵서된 백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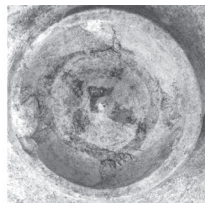
도판				
내용	〈백자묵서저부편〉, 현재 높이 3.5cm, 서울 종로 청진1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묵서저부편〉, 현재 높이 3.8cm, 서울 종로 청진1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묵서저부편〉, 현재 높이 3.6cm, 서울 종로 청진1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묵서저부편〉, 현재 높이 2.6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판				
내용	〈백자묵서저부편〉, 현재 높이 4.1cm, 서울 종로 청진2~3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주서저부편〉, 현재 높이 1.6cm, 서울 종로 청진2~3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주서저부편〉, 현재 높이 4.1cm, 서울 종로 청진2~3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청서저부편〉, 현재 높이 3.2cm, 서울 종로 청진8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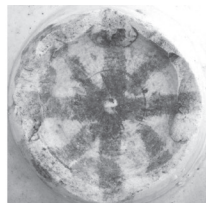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높이 4.3cm, 구경 16.2cm, 저경 5.3cm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높이 4.3cm, 구경 16.2cm, 저경 5.3cm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높이 4.3cm, 구경 16.2cm, 저경 5.3cm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높이 4.3cm, 구경 16.2cm, 저경 5.3cm

도 4 변형 혹은 위조가 가능한 부호형 묵서의 사례

다.

백자에 사용되는 부호는 대부분 검은색 먹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朱書나 靑書로 점이나 단순한 부호를 표시해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묵서에 활용된 먹의 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는 해당 그릇을 사용했던 주체들이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着名과 手決

着名이나 手決로 간주되는 묵서는 백자에 그 표시를 부여한 者들이 백자의 소유 및 출납상황의 변화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착명과 수결은 타인과의 공증이나 공문서에 주로 활용되는 서명방식이므로 착명이나 수결이 묵서로 남아있는 백자는 관청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납입이나 대여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착명은 공문서에 주로 사용되는 서압방식이기 때문에 묵서를 부여한 사람들이 관청에 속한 인물임도 유추해 볼 수 있다(표 3).

조선시대에는 착명과 수결을 지위고하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착명은 개인의 이름을 유려한 서체로 조합하여 만든 일종의 서명(signature)으로 주로 고위관리들이 문서의 작성과 물건의 출납에 자신의 책임을 공증하고 그 소재를 밝히고자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는 착명이 양식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착명은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개성이 발현된 추상성과 함께 판독성도 반드시 갖추어야만 했다. 타인이 모방할 수 없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이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했으므로 이름자를 조합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8</sup> 착명은 신표로서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어야 했으니 일반 백성이나 노비가 사용할 만한 서명의 형식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착명이 묵서된 백자는 주로 해당 그릇을 소유했던 관청의 관리가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관물임을 증명하고 그릇의 관리책임자까지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다. 반면 一心決이라고도 지칭되는 수결은 주로 직함 밑에 '一'자를 길게 굽고 그 상하에 점이나 원 등의 기호를 더하여 '一心' 두 글자를 뜻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부호이다. 수결의 모습은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모습만으로

7 『林下筆記』卷30 春明逸史, 押字之別 着衛用於尊敬 手決施於卑賤者也. 조선 후기의 기록이지만 착함과 수결의 사용을 지위고하에 따라 구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급의 차이에 기인한 착함식 서명과 수결의 쓰임을 관청에서 사용한 문서의 예들을 통해 실제로 증명한 연구로는 박준호,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古文書研究』 20(한국고문서학회, 2002).

8 착명의 추상성 및 독창성은 이름의 주인이 지니고 있는 필력과 조화를 이룰 때 타인이 모방하기 어려운 개성으로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착명은 사대부 출신의 관원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著名과 手決이 묵서된 백자들

도판			
내용	〈백자착명저부편〉, 현재높이 3.4cm, 서울 종로 청진2~3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착명저부편〉, 현재높이 3.4cm, 서울 종로 청진5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수결저부편〉, 현재높이 3.6cm, 서울 종로 청진2~3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판			
내용	〈백자수결저부편〉, 현재높이 2.1cm, 서울 종로2가40번지 시전행랑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수결저부편〉, 현재높이 1.4cm, 서울 정동유적 출토, 고려문화재연구원	〈백자수결저부편〉, 현재높이 1.5cm, 서울 정동유적 출토, 고려문화재연구원

는 누가 수결한 것인지 알 수 없다.<sup>9</sup> 다만 수결이 남아있는 문서나 물건을 점검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다.

도성의 각종 관청에는 다수의 관리가 근무하였다. 관리들은 육조거리를 비롯한 그 배후 지역에서 각 관청별로 식사를 해결했고, 이때 사용된 백자의 원활한 관리와 출납을 위해서는 묵서 등의 표식이 긴히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하여 관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착명과 수결 형식의 묵서가 백자에 나타나는 것이다.

## 2. 묵서의 내용에 따른 구분과 구분별 시문주체

묵서의 내용을 六何原則에 따라 1)누가, 2)언제, 3)어디서, 4)무엇을 등으로 구분하였다. ‘어떻게’와 ‘왜’에 해당하는 나머지 항목들은 ‘백자에 먹으로 표식을 하여 구분을 짓고자’하는 묵서 백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해당하므로 생략하였다.

<sup>9</sup> 朴敏鎭, 「조선시대 著名, 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研究』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 1) 누가(관리자)

도성에서 출토된 묵서백자의 내용은 주로 사람의 성명에 해당한다. 성과 이름을 따로 쓰기도 하고 성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묵서에 나타난 성명을 해당 그릇의 소유주로 단순하게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상황을 고려하자면 주로 그릇을 관리했던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확인된 내용을 통해 그 실체에 좀 더 접근해 보자.

사람의 성명으로 분류가 가능한 묵서는 한글로 시문된 경우가 많다. 이는 묵서를 써넣은 자와 그 내용을 통해 그릇을 관리하는 자 모두 한글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도 한글을 익혔으므로 묵서를 한글로 시문한다면 한자를 사용할 때 보다 묵서의 내용을 해득할 수 있는 대상이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주로 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글묵서에 등장하는 성명의 주인공은 일반 양인 및 그 이하의 노비 계층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에는 백자의 사용자층이 여타 재질의 그릇에 비해 한정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0</sup> 그렇다면 이 시기 도성에서 백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궁궐을 제외하면 여러 관청 및 일부 사대부계층이었을 것이다. 도성의 관청들은 각기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물품을 각각 보관하였으며 일상에서 활용되는 그릇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매일 이루어지는 식사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연회에 사용되는 각종 그릇은 해당 관청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관·관리했을 것이다.<sup>11</sup> 추가로 소용되는 그릇은 관청별로 구입 등의 방법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출납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sup>12</sup> 그러한 배경으

<sup>10</sup> 『世祖實錄』 39卷, 12年(1466) 6月 7日 丙午條.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白磁器는 進上과 이전에 燒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만한 사람은 工人까지도 制書有違律로써 科罪하도록 하고, 또 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白土가 産出되는 곳은 所在邑으로 하여금 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本曹와 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sup>11</sup> 『世宗實錄』 66卷, 16年(1434) 12月 12日 乙卯條. 호조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각도가 흉년으로 인하여 豐儲倉과 廣興倉에 수납하는 것과 各司에 供上하는 田稅가 원래의 수량에 차지 못하여, 일 년 동안의 지출과 調達을 매양 군자 감에서 꾸어 오니, 이 때문에 軍需가 날마다 줄어드니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감하고 생략할 방책을 조목조목 진달합니다. 1. 육조와 大諫에게 常參 뒤에 朝飯을 주는데, 한갓 국고를 소비할 뿐이니 헌부의 대장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덜어 없앨 것. …(중략)… 1. 모든 곳의 監役 관리의 세 때 공궐과 궐내에 들어와 역사하는 匠人의 세 때 料를 각각 한 때 분을 감할 것. 1. 宗學과 여러 곳의 監上과 仁壽府·禮賓寺 관리의 두 때 공궐을 없애고 한 때만을 줄 것. (후략)… 상술한 기사를 통해 궐내각사의 관리들이 보통은 하루에 세끼를 먹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sup>12</sup> 『中宗實錄』 61卷, 23年(1528) 5月 16日 丙戌條. …(전략) 그때 신들이 賓廳에 있으면서 승지들과 **속시가 작현레 뒤에 유생들을 供饋하는 일로 沙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沙器所에 잇달고**, 또한 동대문 밖 郊外에서 관가하시게 되는 일 때문에 坊里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濟川亭 도로를 닦느라 지극히 소란스럽다고 했었으니, 이번의 그 정지하라고 명하신 소식을 정원이 마땅히 시급하게 甘結을 받아 曉諭해야 한다고 하고, (후략)…

로 인하여 백자처럼 官物로 인식된 한정적인 재화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혹은 유출되었다면 다시 회수할 때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했을 것이다.

매일 이루어지는 관리의 식사는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원칙이나<sup>13</sup>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관리의 식사에 관련된 사항을 실제로는 각사에 배속된 노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4</sup> 이 때문에 관리의 식사에 사용되는 그릇 또한 노비가 관리했을 것이다. 궁궐의 음식과 그릇을 관리하는 실무자들 역시 대부분 노비였다.<sup>15</sup> 궁궐의 노비는 관청의 노비와 같이 식사에 소용되는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용하던 그릇이나 공물이 사라질 경우에는 담당했던 노비들이 책임을 물어야 했다.<sup>16</sup> 이러한 이유로 그릇의 출납을 담당했던 관리자를 명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 중에 한글로 시문된 이름은 일반적으로 성은 없이 이름만 등장한다. ‘막비’, ‘군비’, ‘복비’, ‘슈비’ 등의 ‘비’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강이지’와 같은 이름도 나타난다. 이러한 이름들의 주인은 그다지 높은 신분에 속하지 않는 여성으로 간주된다(표 4).

13 『成宗實錄』 16卷, 3年(1472) 3月 4日 庚子條, 司憲府持平 金利貞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중국의 예에 의하여各司의 供饋를 파하고 朝土로 하여금 각기 月俸을 받아서 스스로 辦備케 하려고 하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我朝의 習俗이 중국과 달라서, 先王朝 때에 모든 弊事를 남김없이 전부 제거하였으나 오직 이 공궐만은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니,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傳旨하기를, “내가 듣건대, 중국에 이 법령이 있다 하니, 戶曹에서 의논하여 아뢰면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14 『成宗實錄』 16卷, 3年(1472) 3月 1日 丁酉條, 戶曹에 傳旨하기를, “무릇 官員의 供饋를 그 官司의 노비들이 支供給하고 辦備하기 때문에 날로 凋殘하므로, 중국의 법에 의거하여 朝官들의 俸祿을 넉넉히 지급하고, 일체로 公辦을 금하여 그 폐해를 구제하려고 하니, 마땅히 행해야 할 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中宗實錄』 93卷, 35年(1540) 8月 14日 癸酉條, …(전략) 앞으로 배롱할 때는 제판의 공궐을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게 하지 말고 **해당各司의 奴子가 공궐을 조출히 마련토록** 하되 만약 정도에 지나치는 일이 있을 경우는 法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시고 (후략)…; 『宣祖實錄』 7卷, 6年(1573) 9月 26日 癸卯條, 헌부가 아뢰기를, “公辦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한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중략)… 첫째, 폐해가 백성의 목숨에 미치는 것입니다.各司의 음식을 典僕에게 장만하도록 책임 지우는데 주인이 항상 먹는 음식물을 바치는 이외에 遊宴에 드는 것과 迎饌에 드는 것을 제멋대로 외람되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복이 파산하여 떠들게 되고 私主人이 멋대로 탐학을 부리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략)…

15 『世宗實錄』 19卷, 5年(1423) 2月 10日 辛酉造.

16 『世宗實錄』 7卷, 2年(1420) 閏1月 29日 戊戌條, 禮賓判事 金素 등이 말하기를, “本寺에서 朱漆器와 鑪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낼게 하여 왔습니다.** 연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서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실립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 됩니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 갔다가, 수를 세어서 나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받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世宗實錄』 35卷, 9年(1427) 2月 2日 庚申條, 교지를 내리기를, “서울과 지방의 **각 官司의 奴婢들에게 公處의 逋欠을 징수하지 말라.**” 하였다.

표 4 이름이 묵서된 백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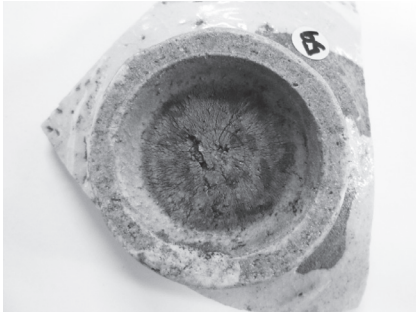
도판				
내용	〈백자 ‘뉴워리’문저부편〉, 현재높이 3.8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학그미’문저부편〉, 현재높이 3.4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순금미’문저부편〉, 현재높이 3.1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귀금이’문저부편〉, 현재높이 2.8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판				
내용	〈백자 ‘막비’문저부편〉, 현재높이 4.5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군비’문저부편〉, 현재높이 3.3cm, 서울 종로2가 40번지 시진 행랑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짚이’문저부편〉, 현재높이 3.8cm,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자 ‘강아지’문저부편〉, 현재높이 4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특히 두 음절로 이루어진 이름의 종성이 자음일 경우에는 접미사 ‘이’ 혹은 ‘미’가 부착되어 이름이 주로 호격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뉴워리’, ‘학그미’, ‘순금이’, ‘귀금이’ 등의 이름은 유월, 학금, 순금, 귀금 등과 같은 여성의 이름이 타인이 그녀들을 지칭하는 호격으로 묵서된 형태이다. 이 경우에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묵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각기 그릇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묵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다면, ‘막비’, ‘군비’와 같이 종성이 없는 이름들 역시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sup>17</sup> 한글로 시문된 이름 중에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원인은 관청이나 사대부가에서 음식을 차리고 식사가 끝난 후 뒷정리를 주로婢들이 담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8</sup>

<sup>17</sup> 현재 묵서에 드러나는 이름만을 가지고는 해당 인물의 신분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다. 조선 전기에는 양인과 노비들의 이름에서 확실한 구분점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시대상을 고려 할 때, 사대부의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백자에 명기하여 그릇들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sup>18</sup> 『燕山君日記』 60卷, 11年 12月 17日 丁卯條.各司의 건강한婢子를 골라 경복궁에 들어가內侍客에게 공궤할 제구를 배설하였으니, 장차 대비에게 進宴하려는 것이었다. 『中宗實錄』 28卷, 12年 7月 27日 庚子條.헌부가 封事를 올리고, 또 아뢰기를, …(중략)… 궐내各司에 음식을 공궤하는婢子와 差備 없는 여인이 번거롭게 출입하므로 엄속하지 못하니, 問安하는 비자 외에는 일체 금하소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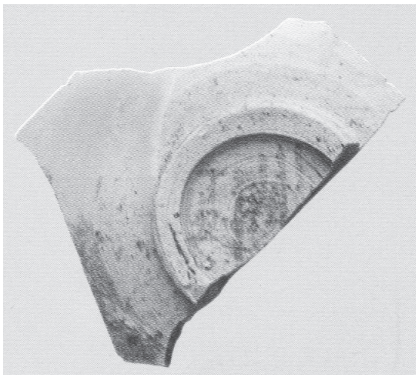
## 2) 연제(귀속시점)



도5 <백자 '제기경신오월' 문지부편>, 현재높이 3.1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한울문화재연구원



도6 <백자 '丁未김시묘三月' 문지부편>, 현재높이 3.2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7 <백자 '尙州丁丑' 문지부편>, 현재높이 3.5cm, 서울 동대문운동장 유적 출토, 중원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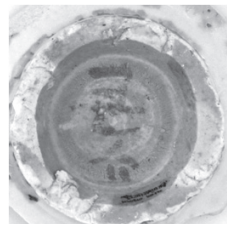
목서의 내용에 干支를 포함하는 유물들이 간혹 출토된다. 이는 그릇의 소유 및 관리 상태의 변화 시점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경신오월' 문지부편>에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목서되었다. 한글의 확장과 죽절급의 제작시기 등을 고려할 때, 庚申年은 1500년 혹은 1560년에 해당할 것이다. 字形의 관찰을 통해 굽 안쪽에 '경신'과 '오월'이라는 목서를 써넣고 난 다음, 우편의 한쪽에 '제기'라는 그릇의 목적을 부가한 것을 알 수 있다(도 5). <백자 '丁未김시묘三月' 문지부편>에도 丁未라는 간지가 등장한다(도 6). 목서의 내용은 干支+人名(?) + 日時의 순이다. 목서의 내용 중에 한글이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丁未年은 1487년 혹은 1547년에 해당할 것이다. 이 목서백자의 干支는 그릇의 제작시점이 아닌 해당 그릇이 최종 소비처로 귀속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대문운동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목서백자가 확인되었다. <백자 '尙州丁丑' 문지부편>의 목서는 丁丑年에 尙州에서 납입된 백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도 7). 동대문운동장은 訓練院의 下都監이 자리했던 곳이며 이러한 관청에서는 여러 지방에서 공납된 그릇을 호조를 통해 분배받아 사용했으므로 정축년에 상주로부터 납입된 그릇이라는 목서가 남아있는 백자가 출토된 것이다. 백자에 목서된 정축년은 1457년, 1517년 또는 1577년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제작된 백자는 진상으로만 한정하라는 1466

년 세조의 왕명을 존중하자면 해당 유물에 묵서된 정축년은 1457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sup>19</sup>

### 3) 어디서(사용장소)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계층의 차이가 투영되었으며 그릇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관청이나 사대부가에는 수장이나 가장 말고도 다양한 계층의 권속들이 함께 생활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모습의 백자가 서로 다른 계층 간에 혼용될 가능성이 다분했다. 사대부가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식솔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데는 무리가 따랐다. 가족 구성원은 안채와 사랑채 등 공간적 구분에 따라 별도로 식생활을 해결했다. 한 집안 내에 구분된 다수의 공간에 나뉜 그릇에도 별도의 구분표시가 필요했을 것이다. 서울 종로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웃쇼’, ‘큰쇼’, ‘스랑’ 등의 한글묵서는 그릇이 속해있던 공간을 지칭한다. 각각 上所, 大所를 의미하며 스랑은 집안의 가장이 기거하는 사랑채를 의미할 것이다. 장소를 의미하는 묵서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백자가 어느 곳에 속했던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문중에 함께 기거하는 主從, 長幼 간에 그릇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표시되었다(표 5). 이처럼 그릇에 사용처를 묵서로 표시하는 방법은 관청에서도 활용되었다. 당시의 관원은 한 사람이 복수의 관청에서 겸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연계된 관청 간에 인원 및 물자가 이동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각각의 관청에서는 官物인 백자를 관리하기 위해 묵서를 활용하였다. 이때는 주로 漢字로 묵서되었다. 현재까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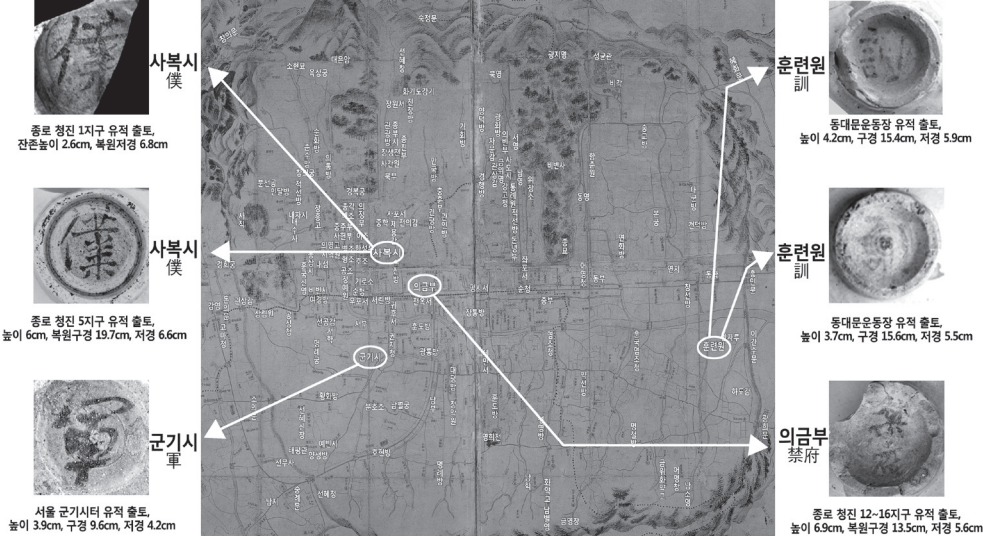
표 5 사용처가 묵서된 백자들

도판			
내용	〈백자 ‘스랑’문지부편〉, 현재높이 2.1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단연구원	〈백자 ‘웃쇼’문지부편〉, 현재높이 2.1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단연구원	〈백자 ‘큰쇼’문지부편〉, 현재높이 2.8cm,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단연구원

<sup>19</sup> 각주 10번 참조.

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義禁府의 주변에서 출토된 <백자'禁府'문저부편>, 司僕寺의 주변에서 확인된 <백자'僕'문저부편>, 軍器寺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백자'軍'문저부편>들, 訓練院의 자리에서 출토된 <백자'訓'문저부편>이 대표적이다(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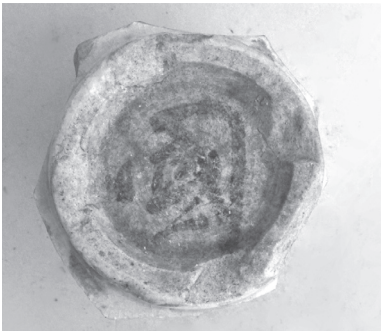
이외에도 육조거리의 배후지에서 ‘官’, ‘國’과 같이 官用, 國用的 물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표시된 백자들이 확인된다(도 9, 10). 이러한 묵서의 존재를 통해, 도성의 각사에서 관물인 백자의 출납 관리를 위해 묵서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도 8 한양도성 내에서 출토된 관청소용[官物]의 묵서백자들



도 9 <백자'官'문저부편>, 현재높이 3.5cm, 서울 중구 장교4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도 10 <백자'國'문저부편>, 현재높이 2.7cm, 서울 종로 청진12~16지구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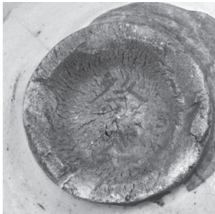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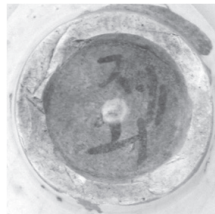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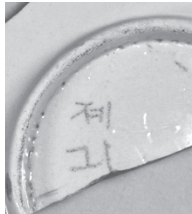
#### 4) 무엇을(용도 및 성격)

묵서로 그릇의 용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백자‘祭器’문저부편>의 굽안 쪽에는 祭器라는 글자가 묵서로 시문되었다. 일반적인 그릇을 제기와 같은 특수 목적기로 활용한 경우이다. 비록 일반그릇을 제기로 사용했지만 그릇의 외관이 제기로 구분할 만한 특징이 없으므로 여타 그릇과의 구별을 위하여 묵서로 그릇의 용도를 명기한 것이다.

“옛날에는 犧牲·器皿·衣服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燕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기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연기로 대신 쓰면 될 것인데도 반드시 감히 제사지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 의의가 어찌 엄하고도 중하지 않습니까. 종묘의 제사 때에 쓰는 器皿은 오로지 司饗院의 沙器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禮記』에 이른바 燕器라는 것으로 옛사람이 감히 이것으로 제사 지낼 수 없다고 한 물건인 것입니다. 이는 古禮로 헤아려 보아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sup>20</sup>

위의 기록과 같이 일반그릇을 제기로 활용하는 것은 禮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반그릇이 제기로 활용되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로 어영청지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일반 백자에 점각명으로 ‘제기’, ‘허니’ 등을 시문한 예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때 ‘허니’라는 점각명문은 獻彝의 국문표현으로 간주된다(표6).<sup>21</sup>

표 6 그릇의 용도가 표시된 백자들

도판				
내용	<백자‘祭器’문저부편>, 현재높이 2.1cm,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단연구원	<백자‘제기’문저부편>, 현재높이 3.1cm, 서울 종로 청진2~3 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종로 어영청지 유적 출토 백자제기류, (좌) 현재높이 3.5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	

<sup>20</sup> 『宣祖實錄』 180卷, 37年 10月 20日 丙寅條.

<sup>21</sup>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종로어영청지유적』(2011); 박정민, 앞의 논문(2012).

### Ⅲ. 한글묵서백자의 등장시기를 통해 본 조선 전기 常燔백자의 조형변화

#### 1. 한글묵서백자의 등장시기

1443(世宗 25)년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 조선의 문자생활은 큰 변화를 겪는다.<sup>22</sup> 조선은 발달된 금속인쇄술을 바탕으로 불교서적에서 문학작품과 의학적서에 이르는 다양한 책을 한글로 간행하였다.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세종의 노력으로 백성들의 한글사용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문자생활의 편리함을 감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사용 또한 한글이 정착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서울에서 출토된 한글묵서백자의 존재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의 일상의 문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 하겠다. 한글묵서에서 확인되는 모음과 자음의 융합구조와 훈민정음의 반포 후 한글확산 과정에서 사라져간 子音들을 통해 그릇에 한글이 묵서된 시기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sup>23</sup> 유성마찰음으로 유성음 사이에 나타나던 ‘ㄷ’은 대체로 15세기 후반에 ‘ㄷ’ 모음 앞에서 먼저 사라졌고,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다른 모음들 앞에서도 소실되었다. 순경음 비음인 ‘빙’ 역시 15세기 한국어의 유성 양순 마찰음의 소리를 나타냈던 것이라 여겨지며 ‘ㄷ’보다도 빠르게 사라진 자음이다.<sup>24</sup>

현재까지 확인된 백자의 묵서에는 ‘ㄷ’과 ‘빙’ 등의 자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묵서백자가 시문된 시점에 대한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상술한 두 가지 자음의 소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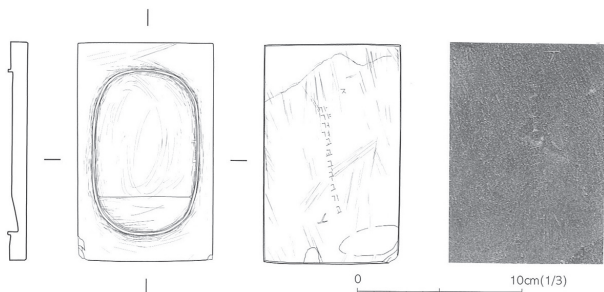
<sup>22</sup> 『世宗實錄』 102卷, 25年(1443) 12月 30日 庚戌條. 이달에 임금이 친히 諺文 28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篆字를 모방하고, 初聲·中聲·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文字에 관한 것과 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sup>23</sup>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간행된 15세기의 문헌에는 ‘ㄷ’이 나타나지만, 16세기 이후 일정시기가 되면 ‘ㄷ’이 자음체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승희, 「16세기 남부방언의 음운과 관계된 몇 가지 문제」(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윤희선, 「‘ㄷ’의 통시적 변화 과정 연구」(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sup>24</sup>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여린시옷의 후음인 ‘ㅇ’이 관각이나 필사의 편의에 의해 ‘ㄷ’모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ㅇ’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모음은 서로 충돌하였다. ‘ㄷ’음은 중세 국어에서 모음과 모음, 반모음 ‘ㄷ’와 모음, ㄴ·ㄹ과 모음, 모음과 ‘ㅇ’음 사이와 같은 음성적 환경에는 음절 사이에서만 사용되었고, 간혹 사잇소리나 중국어 등의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음절의 맨 앞 절에서도 쓰였다. ‘ㄷ’은 주로 울림소리 사이에서 쓰이던 소리로서 16세기 전반 이후에는 그 발음이 소멸되었다고 한다.

崔世珍(1473~1542)<sup>25</sup>이 1527(中宗 22)년에 지은 『訓蒙字會』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훈몽자회는 종래에 보급되었던 『千字文』, 『類合』 등에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고사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어린이들이 익히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은 한자교습서이다.<sup>26</sup> 최세진은 이 책을 국왕에게 바치기도 했으며 국왕 역시 이를 흡족하게 여겼다.<sup>27</sup>

이 책의 범례에는 원래 훈민정음의 28字의 자음에서 ‘ㅎ’자가 없어진 27자를 언급하고 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등장하는 한글 자모음과 음가설명 방식은 훈민정음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훈몽자회에 등장하는 범례의 내용은 최세진 본인이 창작을 했다고보다는 당시 일반의 문자생활에 통용되는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단어의 초성에만 사용되는 初聲獨用八字로 언급된 ㅋ, ㅌ, ㅍ, ㅊ, ㅍ, ㅇ, ㅎ 등의 자음에 ‘빙’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의 범례에 ‘ㄷ’은 而로 발음하고 ‘ㅇ’도 伊로 발음됨을 언급하여 두 개의 자음이 발음상 중첩됨을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ㄷ’의 소멸은 빠르게 진행된 후, ‘ㅇ’으로 귀결되는 것으



도 11 <석제벼루>, 길이 13cm, 충남 아산 상성리출토, 충청문화재연구원

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이시옷의 소멸은 16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글문서는 해당 자음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실제 현재까지 서울 사대문안의 문화재 조사에서 확인된 한글문서의 초성에 ‘ㄷ’이 등장한 예가 없다.

<sup>25</sup> 崔世珍은 조선시대의 학자이다. 본관은 괴산, 자는 公瑞이다.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중국어에 능통하여 외교 문서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1524년 군자감정으로 있으면서 『親迎儀註』와 『冊嬪儀註』 등을 한글로 풀이하였다. 또한 1527년 『訓蒙字會』를 완성하였으며 이것은 한글의 자음·모음의 이름을 정하고, 순서와 받침 등을 정리한 최초의 저술로 국어학 발달에 큰 업적을 이룩하였다. 1530년 첨지중추부사로서 『皇極經世書說』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1539년 승문원제조로 『大儒大奏議』와 『皇極經世書說』을 지어 바쳤다. 당대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어 학자로 사신들을 맞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中人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직생활에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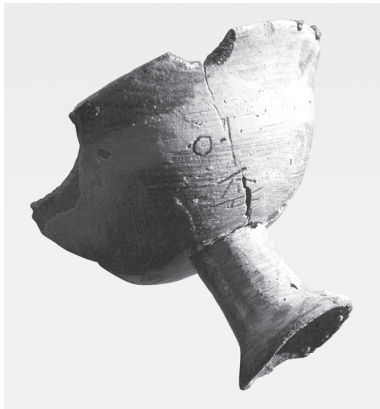
<sup>26</sup> 이 책에는 한자 3,360자에 뜻과 음을 한글로 달았다. 또한 처음으로 한글 낱자에 기역, 니은 등의 이름을 붙였다.

<sup>27</sup> 『中宗實錄』 90卷, 34年(1539) 5月 17日 甲申條. 副護軍 崔世珍이 『大儒大奏議』와 『皇極經世書說』을 올리고 아뢰기를, “대유대주의는 모두 古文이지만 새로 뽑아 모은 것으로써 임금이 보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황국경세서설』 역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어서 감히 올리니, 간행하여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최세진이 앞서도 치도에 관계된 책【언해한 『孝經』, 『小學』, 『訓蒙字會』, 『四聲通解』 같은 책들이다.】을 여러 번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렸다. 그는 비록 閑官이지만 마음 씀이 매우 부지런하니, 이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事大의 자문도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만드니【최세진은 승문원제조이다.】 그 공로가 여찌 작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당상이 된지 오래되었으니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고 또 술도 내려 주라.” 하였다.

『訓蒙字會』의 初中聲合用作字例에는 27개의 한글자모음을 합쳐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 고’ 등의 作字 사례들을 들고 있다. 당시 한글의 확산 상황을 반영한 듯 자모음 합용자의 예가 시문된 유물이 전국에서 확인된다. 충남 아산시 상성리유적 13호 토광묘에서는 석제벼루가 한 점 출토되었다. 벼루의 밑면에는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고’라는 음각명문이 시문되었다(도 11). 주



도 12 <분청자‘라라러러로’명구연부편>, 현재길이 12cm, 부산 기장군 상장안 5호 가마터 출토, 부산박물관



도 13 <분청자어존명고죽배편>, 전남 광주 충효동가마터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변의 토광묘들에서는 죽절굽의 백자들이 출토되었다.<sup>28</sup> 경남 부산시에 위치하는 기장군 상장안 5호 가마터에서 <분청자‘라라러러로’명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도 12). 귀얄기법으로 백토를 분장한 동체에 음각 선으로 한글을 시문하였다.<sup>29</sup> 이처럼 분청자에 음각으로 한글을 시문한 <분청자‘어존’명고죽배편>이 전남 광주시 충효동가마터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도 13). 상술한 두 점의 분청자에 남아있는 시문특징을 고려 할 때, 제작시기의 중심은 16세기초로 판단된다.

경기도 안성시 장원리 유적의 A구역 2호 건물지에서는 ‘니화일지춘디우’명이 음각된 수키와편이 출토되었다(도 14).<sup>30</sup> 해당 한글명문은 ‘利花一枝春帶雨’라는 詩句에 해당할 것이며 白居易(772~846)가 唐玄宗과 楊貴妃에 대해 읊은 長恨歌 120행중 100행의 구절이다. 이 수키와편은 철화분청자병편을 비롯하여 굽의 단면이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백자편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그 제작시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으로 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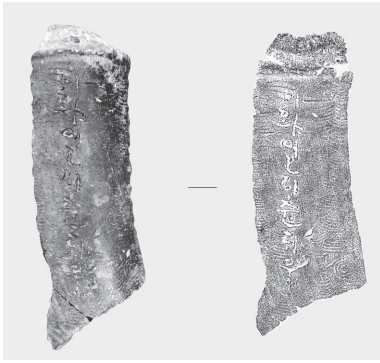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백자철화수뉴문병>의 굽 안쪽에 ‘니가히’로 판독되는 한글이 철화안료로 시문되어있다. 니가히는 李씨의 姓과 가히라는 이름이 합쳐진 것으로 조선 전기 신분이 천한 사람에게 ‘개’의 옛말인 ‘가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sup>31</sup> 굽 안쪽에 남

28 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 상성리유적』(2008).

29 부산박물관, 『機張 上長安遺跡』(2011).

30 한국선사문화연구원, 『安城 長院里 遺蹟』(2012).

31 백두현, 「도자기에 쓰인 한글銘文 해독」, 『미술자료』 78(국립중앙박물관, 2009).



도 14 <음각시명수키와편>, 현재 길이 32.1cm, 경기 안성 장원리유적 출토,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도 15 백자철화수뉴문병, 높이 31.4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060호

아있는 한글이름을 통해 이 병의 제작시기가 15세기 후반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명문의 등장시기를 고려한다면 <백자철화수뉴문병> 역시 살펴본 다른 유물과 그 제작시기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도 15).

『訓蒙字會』 등의 서적을 통한 한글의 확대와 보급은 한글의 교육에 기본이 되는 初中聲合用字例들이 일상용품에 새겨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변화된 자음체계를 고려 할 때, 한글 목서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주로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종로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도 한글로 목서된 백자는 주로 16세기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자로 시문된 목서백자는 15세기를 거쳐 16세기까지 꾸준히 출토되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 2. 한글목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常燔백자의 조형변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백자는 굽의 형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굽의 단면이 이등변삼각형, 혹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백자는 匣鉢에 넣고 번조하거나 갑발에는 넣지 않고 한 개씩 구워낸다. 이러한 종류의 백자는 굽의 안쪽까지 모두 시유해서 번조한다. 굽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형이 정교한 편이며 유약과 태토의 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해당 유물은 주로 15세기 후반이후에 경기도 광주 官窯를 중심으로 제작되며 굽 안쪽에 유면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지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종류의 굽은 죽절굽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내저면과 굽의 접지면에 태토빚음을 받쳐 여러 점의 백자를 포개어 굽는다. 죽절굽백자는 첫 번째 굽 형식의 백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출토된다. 常燔의 백자는 겹쳐서 구워낸 다음 한 점씩 떼어내기 편하도록 굽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는다.<sup>32</sup> 이러한 제작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먹으로 원하는 내용을 써넣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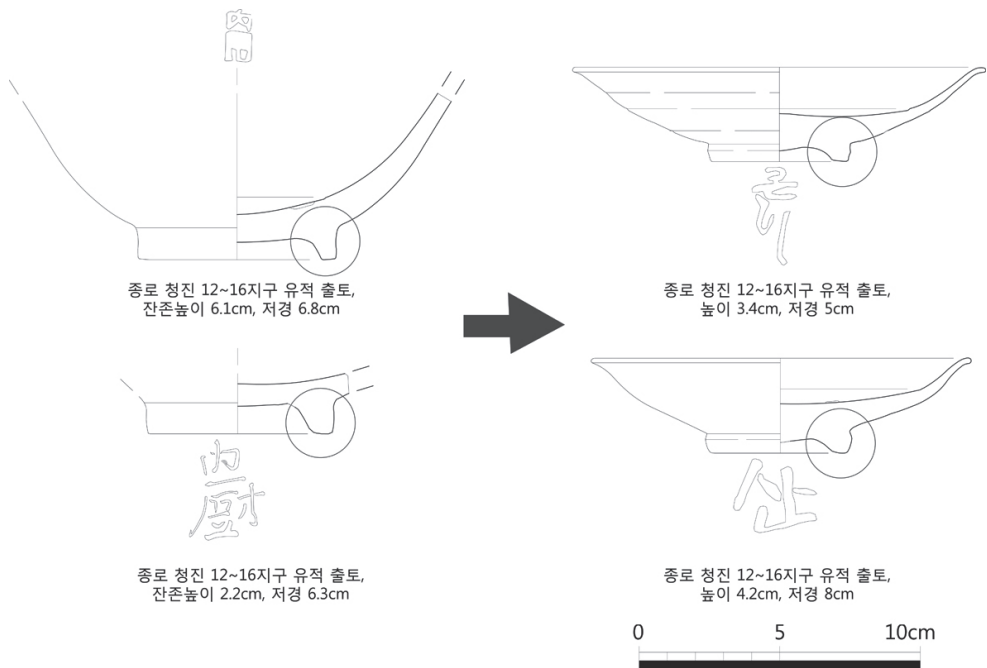
<sup>32</sup> 匣燔이라는 용어와 대를 이루어 포개구이를 한 죽절굽의 백자들을 常燔이라는 용어로 구분한 것은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따랐다.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147.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갑변백자는 주로 15세기 후반이후부터 제작되며 굽 안에 남아있는 유면 음각명문을 기준으로 제작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갑변백자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내저원각이 좁아지는 등의 조형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죽절굽백자는 주로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제작시점을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죽절굽백자의 조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왕에 유추한 한글묵서백자의 등장시기를 죽절굽백자의 조형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조선 전기에 죽절굽의 형식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도출하여 차후 조선 전기 백자의 편년 구분안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삼으려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작시기가 비교적 구체적인 유물을 선별하여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주로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司’, ‘內用’, ‘內廚’명 등의 백자는 굽의 단면이 사각형으로 이루거나 접지면이 좁은 사다리꼴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굽의 형태는 고려말기에 주로 제작된 ‘┌’자형 굽이 단순하게 변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sup>33</sup>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한글묵서 백자의 굽은 대부분 굽의 외측면이 다각형이며 굽 중앙에 돌기가 솟아있어 그야말로 대나무마디[竹節]의 형태이다(도 16). 죽절굽은 단면이 사다리꼴 혹은 사각형인 굽에 비해 마무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으므로 시간과 공력을 덜 들일 수 있는 깎음새이다. 그렇다면 15세기말 혹은 1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상변백자의 굽의 단면형태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467년 이후에 성립되는 경기도 廣州의 官窯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요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광주의 沙器所들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생산을 부분적으로 담당했다. 그러나 司饗院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를 전담한 이후에 제작된 백자의 굽은 대부분 이등변삼각형이나 폭이 좁은 사다리꼴로 만들어지고 匣燻으로 제작된다. 그 과정에서 갑변백자와 상변백자의 질적 차이는 커졌고 상변백자의 굽은 더욱 단정한 조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sup>34</sup> 동시에 16세기로 접어들면서 백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의 확대와 백자 생산량의 증가도 상변백자의 굽이 거칠게 마무리되도록 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sup>33</sup> 고려 후기 굽의 단면은 ‘U’자형에서 ‘┌’자형으로 변화한 이후 여말선초까지 일반적으로 제작된 자기의 굽은 단면은 사각형 혹은 사다리꼴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sup>34</sup> 물론 다량의 그릇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이 글에서 제시된 기준에 상충될 수 있는 유물도 등장할 수 있으나 묵서의 형식을 통해 조선 전기 죽절굽백자의 조형변화를 유추해 보았다는 것에 시도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도 16 15세기에 제작된 인각, 필각銘 백자와 한글묵서백자의 굽 형태 비교

#### IV. 맺음말

이 논문은 최근 서울사대문 안의 조선시대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양한 墨書白瓷을 사용된 문자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선 전기 都城에서 이루어진 公私간의 백자 출납과 그 행위의 주체를 파악한 것이다. 또한 한글묵서를 통해서는 죽절굽백자의 시기별 조형변화에 대한 단초도 제시해보았다.

백자에 먹을 이용하여 내용을 써넣는 이유는 그릇의 귀속상황을 표시하여 원활한 출납과 귀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백자를 사용하면서 소유자나 소유처가 다른 백자들과 뒤섞일 일이 없었다면, 묵서백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도심의 발굴조사에서 매우 다양한 묵서백자가 많이 출토된다는 것은 당시에 그만큼 백자의 소유와 관리 상황이 정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묵서백자를 통해 조선 전기 도성에서 이루어졌던 백자 관리방식의 일면을 확인하였다. 주로 官物로서 사용되던 백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 실무자를 명기하기 위해 묵서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묵서백자에 담긴 내용은 개인이 본인의 소유관계를 타인에

게 인지시키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묵서된 백자의 출납을 관리했던 사람이 그릇의 효율적인 출납과 재고의 파악을 위해 표시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 전기 궁궐과 관청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거드는 일은 주로 奴婢가 담당했으며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사라졌을 경우에 관리자는 그 노비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들의 신분과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漢字보다는 한글이나 부호로 원하는 내용을 시문하는 것이 그릇을 관리하는 실무자와 책임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이 다수의 한글묵서가 등장하는 원인으로 판단되며 남아있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릇의 관리는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한글묵서백자들 중에서 ‘ㄷ’과 ‘ㅍ’이 초성으로 사용된 유물은 아직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점은 한글명문이 사용되는 시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자에 나타나는 한글묵서는 ‘ㄷ’과 ‘ㅍ’이 사라지고 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이후에 주로 시문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해당시기에 백자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한글묵서를 통해 죽절급백자[常燔白瓷]의 시기별 조형변화에 대한 초보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15세기에 제작된 인각 혹은 필각명의 상변백자에 비해 16세기에 제작된 한글묵서백자의 굽의 깎음새가 더욱 거칠고 조잡해지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인 해석도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했다는 비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지를 진행한 이유는 조선 전기에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된 상변백자의 조형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변화상을 포착하고 그 배경을 고민해보려 함이다.

도성에서 이루어졌던 일상의 그릇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지방의 巨刹이나 官衙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를 중앙의 사정과 비교하는 접근도 요구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시도들을 통해 조선 전기 상변백자의 상대적 재화가치와 실제 사용계층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현황과의 비교 분석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주제어(Key Words)\_묵서백자, 상변백자, 한양도성(Seoul City Wall), 백자 관리, 한글묵서

■ 투고일 2013년 11월 29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월 14일 ■

## 참고문헌

### 1. 사료 및 문집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宣祖實錄』  
『訓蒙字會』  
『林下筆記』

### 2.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 2012.  
부산박물관, 『機張 上長安遺跡』, 2011.  
서울특별시·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운동장 유적』, 2011.  
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 상성리유적』, 200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安城 長院里 遺蹟』, 2012.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2가 40번지 시전행랑 유적』, 2010.  
\_\_\_\_\_, 『종로 어영청지 유적』, 2011.  
\_\_\_\_\_, 『종로 청진1 지구 유적』, 2011.  
\_\_\_\_\_, 『종로 청진5 지구 유적』, 2012.  
\_\_\_\_\_, 『서울 세종로 2 지구 유적』, 2012.  
\_\_\_\_\_, 『종로 청진2~3 지구 유적』, 2013.  
\_\_\_\_\_, 『종로 청진12~16 지구 유적』, 2013.

### 3. 단행본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尹龍二,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4. 논문

- 金允貞,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박승희, 「16세기 남부방언의 음운과 관계된 몇 가지 문제」,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박연서, 「朝鮮時代 墨畫·釘刻銘 白磁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박정민,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瓷器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 창간호,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2.
- 박준호,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古文書研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 \_\_\_\_\_, 「조선시대 着名, 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研究』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 백두현, 「도자기에 쓰인 한글 銘文 해독」, 『미술자료』 78, 국립중앙박물관, 2009.
- 윤희선, 「‘△’의 통시적 변화 과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이상국, 「朝鮮時代 墳墓 出土 墨書名 白磁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묵서백자를 통해 조선 전기 漢陽都城에서 이루어졌던 백자 관리방식의 일면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백자들 중에서도 주로 官物로서 관리되던 그릇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자를 명기하는 묵서 방식이 사용되었다. 주로 京中各司들에서 관물로 사용된 백자에 그릇의 출납과 관리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묵서가 사용된 것이다. 조선 전기 관청과 일반의 백자 관리방식을 파악하고자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진 조선시대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양한 묵서백자들을 활용하였다.

묵서백자에 담긴 내용들은 개인이 본인의 소유관계를 타인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묵서된 백자의 출납을 관리했던 사람이 그릇의 효율적인 출납과 재고의 파악을 위해 표시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출토된 묵서백자를 사용된 문자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특징들을 살펴보면, 백자의 귀속과 출납상황이 변화될 소지가 발생했을 때에 주로 묵서가 부가되고 그 주체는 상황에 따라 백자를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들을 포함하여 그릇의 출납 과정을 통제했던 官吏일 것이다.

조선 전기 궁궐과 관청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거드는 일은 주로 奴婢들이 담당했으며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사라졌을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그 노비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들의 신분과 교육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漢字보다는 한글이나 부호로 원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그릇을 관리하는 실무자와 책임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이 다수의 한글묵서가 등장하는 원인으로 판단되며 묵서에 담겨있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릇의 관리는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글로 묵서된 내용을 살펴, 그 등장시기와 활용주체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 보았다. 현재까지 출토된 한글 묵서백자 중에서 ‘ㄷ’과 ‘빙’이 초성으로 사용된 유물이 아직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글이 사용되는 시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전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백자에 나타나는 한글묵서는 ‘ㄷ’과 ‘빙’이 사라지고 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이후에 주로 시문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Joseon White Porcelains with Ink Inscription Discovered in Ancient Capital Area: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Park Jung Min** \*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e of leaving a mark on the surface of white porcelain wares as a means of effectively managing them, which was widely performed in Hanyang, the capital of Joseon,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For the government agencies which used the valuable ceramic vessels, their efficient management w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responsibility, and marking them with the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was a very common practice. The method of marking porcelain ware with ink and brush was widely adopted by government agencies across the capital to identify the whereabouts of the vessels and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m.

This study, which includes a survey of a collection of marked white porcelain discovered at various Joseon period sites in downtown Seoul, was conducted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way the valuable ceramic works were managed in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ordinary household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urvey suggests that the marks made on the vessels by ink and brush were intended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vessels rather than to indicate to whom or to which organization they belonged. An analysis of the writing system used to make the marks and the contents revealed that the marks were made whenever there was any change with respect to the objects' whereabouts or ownership. It is, therefore, highly likely that the marks were made by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directly in charge of managing suppli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preparation and serving of food in royal palaces and

---

\* Senior Researcher of Hanul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ion

government offices was carried out by men and women of lower social status and, hence, less educated. That explains why most of the marks were made not with Chinese characters but with the Korean alphabet (*Hangeul*) or with simple symbols whose meanings were known only to those related with the services, because the latter, much simpler, symbols provided the workers and their managers with a more effective means of managing the valuable items. The names written in *Hangeul* on the porcelain vessels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the kitchen ware was largely in the hands of women.

Finally, the study of the Korean letters marked on the porcelain ware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when and by whom they were made. In fact, none of the Korean inscriptions discovered on the ceramic works uses either ‘△’ or ‘뵙’ to represent the initial sound of a syllable, thus providing an important clue to the time when the inscriptions were written. Considering that the two letters (‘△’ and ‘뵙’) disappeared before the late 15<sup>th</sup> century, the inscriptions on the porcelain works must have been written after the early 16<sup>th</sup> century.